

# 조선 인목왕후의 진료 기록 연구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

<sup>1</sup>김민선, <sup>2</sup>하동림, <sup>3</sup>김남일

<sup>1</sup>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sup>2</sup>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sup>3</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 Study on Clinical Records of Queen Inmok

<sup>1</sup>Minseon Kim, <sup>2</sup>Donglim Ha, <sup>3</sup>Namil Kim

<sup>1</sup>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up>2</sup>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up>3</sup>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clinical records of Queen Inmok has been studied and the impact of historical events on her life has been analyzed. This paper has extracted her medical records during King Seonjo's and King Injo's period from the Annals and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nd then contemplated their medical implications consulting Donguibogam as a primary reference. Queen Inmok had been yang deficiency after national mourning. But suffering a series of misfortunes, she was ill with fire-heat (火熱) syndrome and finally passed away suffering from high fever, frequent diarrhea and profuse sweating. At that time, practitioners abused cold therapy following Jin Yuan Sia Jia (金元四大家), so they missed Queen Inmok's yang deficiency.

Key words : Queen Inmok, Royal Medical Records,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stagnated fire

### I. 서론

인목왕후(仁穆王后) 김씨는 조선 14대왕 선조(宣祖)의 계비로, 세간에 인목대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 구축된 인목왕후의 이미지는 늙은 왕에게 시집가서 광해군(光海君)에 의해 어린 아들과 부친을 잃어버린 뒤 그 자신은 별궁에 10년 가까이 유폐된 가련한 여인으로 그려지는 한편,<sup>1)</sup>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는 인목왕후가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욕심에 화를 자초한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sup>2)</sup>

임진왜란 이후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계축옥사(癸丑獄事)<sup>3)</sup>, 인조반정(仁祖反正), 이괄의 난, 정묘호란 등 굵직한 사건들에 직접 얽히면서, 인목왕후는 역모에 휘말려 핏줄을 잃고, 별궁에 유폐되었다 복위되고, 도성을 떠나 피난에 오르는 등 조선의 다른 왕비들은 한 번 겪기도 어려운 험난한 경험들을 하였다. 이러한 인생 역정을 보면 위의 사건들이 인목왕후의 건강과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는 주요 인물로서 광해군과 인조 때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연구 가운데 인목왕후가 언급되는 경우는 있지만,<sup>4)</sup> 인목왕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연구된 바는

접수 ▶ 2019년 11월 01일 수정 ▶ 2019년 11월 29일 채택 ▶ 2019년 11월 28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 1) 이는 조선시대 작자미상의 소설 『계축일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계축일기』에서 광해군은 적자가 아닌 서자로 무능할 뿐 아니라 분별력을 잃고 악행을 행하는 인물로, 인목왕후는 왕가에 내재된 일련의 속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 유폐되어도 이러한 속성이 변하지 않고 종내에 다시 되살아나는 인물로 대비된다.(김정경, 『『계축일기』에 나타난 선악관 고찰』, 한국고전연구, 2007;16:161-195.)
- 2) 광해군을 주연으로 하는 드라마(SBS 왕의 여자, KBS 왕의 얼굴 등)에서는 주로 광해군과 대립하는 악역으로 등장하였다.
- 3) 1613년(광해군5) 계축년에 광해군과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옥사이다.
- 4) 인조반정의 명분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이 광해군의 인목왕후 유폐였기 때문에, 인조에게 인목왕후는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주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인목왕후를 등장인물로 하는 『계축일기(癸丑日記)』에 대한 연구 또한 소설로서, 사료로서의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어<sup>5)</sup> 인목왕후 개인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 왕실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담고 있는 방대한 사료로서, 왕과 왕비의 진료 기록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현장 자료로서 그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6)</sup>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조<sup>7)</sup>, 효종<sup>8)</sup>, 현종<sup>9)</sup>, 숙종<sup>10)</sup>, 경종<sup>11)</sup>, 영조<sup>12)</sup>, 정조<sup>13)</sup> 등 왕의 질병이나 사인 연구와 더불어, 명성왕후<sup>14)</sup>, 인현왕후<sup>15)</sup>, 장희빈<sup>16)</sup>, 혜경궁 홍씨<sup>17)</sup>, 장렬왕후<sup>18)</sup> 등 왕비의 치병 기록이나 출산에 대한 의학적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승정원일기』는 현재 인조 이후의 자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 왕대의 사건을 연구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진료 기록이 연구된 인물들 또한 인조 이후의 왕과 왕비들에 국한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이하 실록)』은 비록 사건이 일어난 당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후대에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상세함에서는 『승정원일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조 이전의 기록을 갖추고 있어 부족하나마 조선 전기 왕실 인물의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인목왕후의 출산과 질병 치료에 대한 기록을 찾아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하여 정리하고, 발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의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목왕후는 선조~인조 때의 인물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승정원일기』의 시대 이전인 선조~광해군 대의 기록은 『실록』을 통해 살펴보고, 인조 대부터는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목왕후의 치료에 쓰인 처방의 분석에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주로 참고하였다. 선조 대에는 아직 『동의보감』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1600년대 초는 『동의보감』의 인용서들은 이미 모두 출간, 유통된 이후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여 처방을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sup>19)</sup>

본 연구는 역사 인물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그가 앓은 질병 기록이 기여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전후인 17세기 초 왕실 의료의 수준과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II. 본론

### 1. 인목왕후의 생애

인목왕후는 조선 14대왕 선조의 계비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둘째딸이다. 1584년(선조17) 11월 14일에 태어났다.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懿仁王后)가 1600년(선조33)에 사망하자 선조는 1602년(선조35)에 김씨를 새로이 왕비로 맞이하는데, 1552년생인 선조와 32살 차이였고, 아들이 되는 광해군은 인목왕후보다 9살 많았다.

왕비가 되고 이듬해 5월 19일 정명공주(貞明公主)를 출산하였고, 3년 뒤인 1606년(선조39)에는 선조의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았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세력의

었다. (계승범, 「계축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008;26:439-478., 김인숙, 「인조대의 궁중저주사건과 그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2004;31:79-111.)

- 5) 김정경, 상계논문, 이순구, 「『癸丑日記』에 나타난 궁중생활상」, 사학연구, 1998;55(56):443-458. 이영호, 「서술자의 측면에서 본 『계축일기』의 표현 전략 연구」, 고전문학과교육, 2006;11(11):41-69.
- 6) 홍세영, 차용석, 김남일, 「『承政院日記』의 진료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8;21(1):1-11.
- 7)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용석, 「조선 仁祖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 - 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23-41.
- 8) 강도현, 고대원, 나향미, 송재민, 차용석, 「승정원일기의 의안(醫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2014;27(4):55-72.
- 9) 이상원, 김동윤, 차용석, 「조선 현종대왕의 침구치료기록에 대한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1;28(2):77-86.
- 10) 고대원, 김동윤, 김태우, 차용석,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43-51.
- 11) 김동윤, 김태우, 차용석, 「景宗의 病歷에 대한 연구 I - 『承政院日記』 藥房 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11-22. 김동윤,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5-31.
- 12) 김선형, 김달래, 「영조의 질병력과 사망원인: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의사학, 2010;19(2):299-342.
- 13)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9;30(4):142-161.
- 14) 박주영, 국수호, 김남일, 차용석, 「현종 비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9;32(1):11-20.
- 15) 방성혜, 차용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 16) 방성혜, 김남일, 안상우, 차용석,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장희빈 의안 관련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53-62.
- 17) 박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적 연구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8) 박주영, 차용석, 김남일, 「조선 장렬왕후의 경련에 대한 치병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1):79-87.
- 19) 선조가 허준 등에게 『동의보감』의 편찬을 명한 것이 1596년(선조29)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간대는 『동의보감』이 편찬되고 있던 시기부터 출간된 이후의 시기에 걸쳐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된 인목왕후가 후계자로 세자인 광해군을 지목하면서 왕위는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의 존재가 광해군에게 위협이 되면서 결국 1613년(광해5) 광해군은 역모 사건을 구실로 하여 영창대군을 유배하였고,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과 가족들도 사사되거나 유배되었다. 이 사건이 계축옥사로, 영창대군은 유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되었고, 인목왕후는 계축옥사 이후로 경운궁(慶運宮)<sup>20</sup>에 유폐되었다. 1618년(광해10)에는 대비의 지위에서 강등되었고, 1623년 인조반정에 의해 광해군이 물러나면서 복위되었다.

반정의 명분으로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를 든 만큼, 인조는 인목왕후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인목왕후는 1632년(인조10) 6월 28일, 질병이 악화되어 만 47세의 나이로 숨이 끊어지게 된다.<sup>21</sup> <표 1>은 인목왕후의 생애를 도시한 것이다.

표 1. 인목왕후의 생애

연도	(만)나이	사건
1584(선조17)	0세	탄생
1602(선조35)	17세	왕비 간택
1603(선조36)	18세	정명공주 출산
1606(선조39)	21세	영창대군 출산
1608(선조41)	23세	선조 승하
1613(광해5)	28세	계축옥사
1614(광해6)	29세	영창대군 살해됨
1618(광해10)	33세	폐모론으로 지위 강등
1623(광해15)	38세	인조반정으로 복위
1632(인조10)	47세	사망

## 2. 인목왕후의 출산

선조와 인목왕후의 슬하에는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의 1남 1녀가 있으며, 그 사이에 사산한 공주가 한명 더 있었다. 인목왕후의 출산과 관련된 『실록』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 2>이다.

표 2. 인목왕후의 출산 관련 기록

연도	날짜	기록
1603 (선조36)	2월 18일	산실(産室)을 설치 <sup>22</sup> )
	5월 19일	정명공주 출산 <sup>23</sup> )
	5월 22일	출산 후 복통 호소 <sup>24</sup> )
1604 (선조37)	윤9월 9일	산실을 설치 <sup>25</sup> )
	11월 17일	난산으로 최생단(催生丹) 복용, 공주를 사산 <sup>26</sup> )
1606 (선조39)	3월 6일	영창대군 출산 <sup>27</sup> )

영창대군의 출산에 대해서는 『실록』에서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1606년(선조39) 3월 6일에 예조에서 대군(大君)의 탄생을 축하하자는 건의를 한 것을 보면 이 무렵 출산하였다고 짐작된다.

정명공주를 출산한 뒤 복통을 앓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주일 정도 치료 후 평안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604년 11월 공주를 사산한 때에도 열흘이 지나지 않아 회복했음을 언급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sup>28</sup>)

## 3. 인목왕후의 질병

### 1) 선조대

앞서 언급했듯 선조와 광해군대 인목왕후의 진료 기록은 『실록』을 통해 알아볼 수밖에 없다. 선조 때 인목왕후의 질병에 대해서는 정명공주 출산 후 복통을 앓은 일과 사산 후 열흘이 채 되지 않게 앓았던 일 외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사산 후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선조 때 인목왕후의 진료 기록으로서 정명공주 출산 후에 나타난 복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은 1603년(선조36) 출산 후 사용된 처방과 치료 경과에 대한 것이다.

20) 지금의 덕수궁이다. 서쪽에 위치하여 서궁(西宮)이라고 하였다.

21) 이상의 내용은 『실록』과 『승정원일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22) 『선조실록』 선조 36년 2월 18일 7번째 기사 “傳曰中宮殿產室排設”

23)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19일 5번째 기사 “中殿解婉生公主”

24)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22일 2번째 기사 “藥房問安于中殿答曰寢睡則平安而時或腹痛與昨一樣”

25) 『선조실록』 선조 37년 윤9월 9일 1번째 기사 “中殿產室排設”

26) 『선조실록』 선조 37년 11월 17일 1번째 기사 “寅時中殿誕死胎【自去夜玉候有難產之患遂用催生丹及他方藥則至寅時始誕公主乃死胎也】”

27) 『선조실록』 선조 39년 3월 6일 2번째 기사 “右承旨宋駿以禮曹言啓曰大君誕生則祖宗朝前例有陳賀之禮今亦依前例舉行何如”

28) 『선조실록』 선조 37년 12월 13일 4번째 기사 “況今此中殿未寧纔過十餘日旋即平復”

표 3. 1603년(선조36) 인목왕후 출산 후 복통의 경과 및 처방

날짜	경과	처방
5월 19일	출산	
~		자금환, 궁귀탕 가미
5월 22일	복통	자금환 가 오령지 몰약, 궁귀탕 가미, 담초탕
5월 23일		궁귀탕 가 생건지황 1돈, 목단피, 도인, 홍화 각5푼 (모두 주초)
5월 24일		궁귀탕 가미, 황자계즙(혹은 죽), 붕어전
5월 25일	평안함	
5월 26일	평안함	

인목왕후는 1603년(선조36) 5월 19일 정명공주를 출산하였고, 이후 복통을 호소하였다. 5월 22일 약방(藥房) 제조(提調)<sup>29)</sup>는 이를 산후에 흔히 나타나는 복통으로 보고, 자금환(紫金丸)에 오령지(五靈脂), 몰약(沒藥) 등의 파혈(破血)하는 약재를 더한 뒤, 궁귀탕(芎歸湯)과 담초탕(淡醋湯)에 타서 먹을 것을 권하였다.<sup>30)</sup>

자금환은 『동의보감』 「부인문(婦人門)」에서 아침통(兒枕痛), 즉 산후에 패혈(敗血)이 나오지 않아 덩어리가 생기며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으로,<sup>31)</sup> 오령지와 포황(蒲黃)으로 구성된 실소산(失笑散)을 식초와 섞고 진득하게 졸여 환을 만든 것이다.<sup>32)</sup> 즉 산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복통에 가장 먼저 써볼 수 있는 처방으로 볼 수 있다.

궁귀탕은 『동의보감』 「부인문」에서 임신에 두루 쓰는 약으로 소개되며, 아이를 낳은 후에 먹으면 악혈(惡血)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였다.<sup>33)</sup> 아침통을 치료할 때 궁귀탕에 삼릉(三稜), 붕출(蓬朮), 목단피(牡丹皮), 도인(桃仁), 홍화(紅

花)를 가미하여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하는데,<sup>34)</sup> 23일 처방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궁귀탕에 생건지황(生乾地黃), 목단피, 도인, 홍화를 가미하였다.

담초탕은 식초를 묽게 물에 탄 것으로, 『동의보감』 「부인문」에서는 단방(單方)으로 식초를 사용하여 태아가 죽어서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sup>35)</sup> 즉 어혈을 빼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목왕후의 산후 복통은 출산으로 생긴 어혈에 의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어혈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처방들을 복용하여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치료되었다. 약방에서는 위의 어혈 제거용 처방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철 더위에 위(胃)가 상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약과 환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일을 조절하고,<sup>36)</sup> 인목왕후의 입맛이 떨어진 것을 고려하여 위를 보할 수 있는 누런 암탉(黃雌雞)이나 붕어(鮪魚)를 죽이나 죽으로 만들어 먹도록 하였다.<sup>37)</sup> 『동의보감』 「탕액편(湯液篇)」에서 이 때 쓰인 음식을 찾아보면, 누런 암탉은 성질이 평하고 따뜻하기도 한데 오장을 보하고 골수를 채우며 정(精)을 보충하고 양기(陽氣)를 돕는다고 하였으며,<sup>38)</sup> 붕어(鮪魚)는 위기(胃氣)를 고르게 하고 오장을 보하며 장(腸)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sup>39)</sup> 『식의심감(食醫心鑑)』에서는 누런 암탉과 붕어를 산후에 식치(食治) 처방으로 사용하는데,<sup>40)41)</sup> 이 내용은 조선시대 식치 의서인 『식료찬요(食療纂要)』에도 실려 있어 누런 암탉과 붕어가 조선 왕실에서 산후의 보양에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태산요록(胎産

29)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25일 2번째 기사를 보면 당시 약방 제조는 유영경(柳永慶)·신잡(申礪)·이상의(李尙毅)이다.  
 30)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22일 2번째 기사 “藥房提調啓曰臣等伏聞內殿玉候夜間寢睡不安而腹中凝塊作痛之候今猶不止此雖產婦產後例有之證而若不趁即用藥解散則必爲後患議于醫官則凡破血之藥五靈脂沒藥最良前用紫金丸入五靈脂沒藥等材皆能破血宜更進御但一日內三進湯藥恐妨胃氣朝夕則前加入芎歸湯煎水紫金丸二丸調和午間則淡醋湯調和以進宜當云此藥更爲進用何如”  
 31) 『동의보감』 「婦人」 兒枕痛 “胎側有成形塊爲兒枕子欲生時枕破血下若敗血不下則成塊作痛不可忍乃血癥也宜用失笑散紫金丸三聖散黑龍丹(方見上)花藥石散(方見諸傷)起枕散立效散<良方>”  
 32) 『동의보감』 「婦人」 [失笑散] “治產後兒枕臍腹痛欲死百藥不效五靈脂蒲黃炒各等分右爲末每二錢和醋熬成膏入水一盞煎至七分熱服立效<局方>” [紫金丸] “治同上右以失笑散末和醋熬膏丸如櫻桃大每二丸童便溫酒各半盞調服『良方』”  
 33) 『동의보감』 「婦人」 [芎歸湯] “治產前產後諸疾及血量不省橫生逆產死胎不下血崩不止臨月服之則縮胎易產產後服之則惡血自下川芎當歸各五錢右剉作一貼水煎服日二三次”  
 34) 『동의보감』 「婦人」 兒枕痛 “○芎歸湯加三稜蓬朮玄胡索牡丹皮桃仁紅花煎服即效<良方>”  
 35) 『동의보감』 「婦人」 [醋] “治孕婦胎死不出醋三升煮黑豆一升煮取汁服二升兒立出<本草>”  
 36)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23일 2번째 기사 “藥房提調問安于中殿啓曰昨昨日下午教時或腹痛之證比前一樣未知今則何如臣等不勝悶慮之至敢來問安答曰氣候寢睡平安腹痛度數比前稍減而間或發作則刺痛矣藥房提調問安于大殿啓曰臣等伏聞內殿玉候寢睡平安凝塊腹痛之候亦比前稍歇云此證進藥調保則自當漸至平復今當夏月湯劑和丸藥多進則恐妨胃氣更與醫官等商議則加生乾地黃酒炒一錢牡丹皮桃仁紅花酒炒各五分芎歸湯一日一次進御爲當云此藥依此進用何如”  
 37)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24일 3번째 기사 “藥房提調問安于中殿啓曰腹痛之候今則如何敢來問安答曰腹痛比前則間間作痛而度數亦漸減歇矣藥房啓曰伏聞內殿玉候平安腹痛間間作痛而比前則度數亦漸減歇玉候漸向平復今日則前加入芎歸湯仍爲進用更觀玉候如何或更議他藥或停爲當但因醫女伏聞內殿進水刺此必胃氣不和而與醫官商議則產後不可專用藥物黃雌雞爛煮取汁或作粥或鮪魚煎和進則可以補胃氣云依此進用何如”  
 38) 『동의보감』 「湯液編」 禽部 “黃雌雞肉 누른암닭性平 (一云溫)味甘 (一云酸) 無毒主消渴小便數腸辟泄痢補益五藏添髓補精助陽氣煖小腸<本草> ○色黃又脚黃色者佳<入門>”  
 39) 『동의보감』 「湯液編」 魚部 “鮪魚 鮪魚性溫 (一云平)味甘無毒平胃氣益五藏調中下氣止下痢合葷作羹主胃弱不下食作胎主久赤白痢 ○一名鮪魚諸魚中最可食色黑而體促肚大而脊隆池澤皆有之 ○一種背高腹狹小者名鮪魚力差劣<本草> ○諸魚皆屬火性惟鮪魚屬土故能入陽明而有調胃實腸之功又云魚在水中無一息之停故能動火<入門>”  
 40) 『식의심감』 (한외고전명저총서) 治產後傷中消渴小便數腸下痢補五藏益氣黃雌雞粥方 “黃雌雞一隻治如常紅米三合 右切取肉和米煮粥著鹽薑葱醬食之”  
 41) 『식의심감』 (한외고전명저총서) 治產後赤白痢臍肚痛不可忍不可下食鮪魚粥方 “鮪魚一斤半紅米參合 右以紙各裹魚於糖灰中炮令熟去骨研煮粥熟下鮪魚攪令勻空心食鹽蔥醬如常”

要錄』에서는 음식 금기를 설명하면서 붓어나 누런 암팍은 산후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모두 과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하였다.<sup>42)</sup>

적절한 치료로 인목왕후의 복통은 일주일이 되지 않아 편안해질 수 있었다. 이듬해 둘째 공주를 사산한 뒤에도 열흘이 채 되지 않아 회복되고, 사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영창대군을 회임한 것을 보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인목왕후의 회복력이 빠른 편으로 생각된다.

## 2) 광해군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서는 인목왕후의 자세한 진료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인목왕후가 서궁(경운궁)에 유폐된 이후로는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광해군 초기까지는 아직 일반적인 대비와 임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목왕후의 건강을 염려하여 입진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선조의 승하 이후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인목왕후는 몸이 야위고 뼈만 앙상하며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다만 울무죽 두어 모금만 먹을 뿐이어서, 약방에서 약을 의논하게 한 기록이 보인다.<sup>43)</sup> 같은 해 9월에는 두통(頭痛)을 앓은 기록이 있으나<sup>44)</sup> 진료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0월에는 상태가 조금 회복된 듯하지만, 광해군의 말에 따르면 인목왕후가 여러 달 평안하지 못해 원기가 극도로 쇠약해졌고, 전부터 바람을 두려워하여 잠시라도 추위를 맞으면 치통(齒痛)이 바로 발생한다고 하였다.<sup>45)</sup> 인목왕후의 오풍(惡風)이나 치통에 대해서는 이 외의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612년(광해4) 10월에는 새로 배속된 의녀들의 의술이

전보다 나아 지난번 자전(慈殿)<sup>46)</sup>이 아플 때에도 입진하도록 하였다는 기사<sup>47)</sup>가 있어, 이와 멀지 않은 시기에 인목왕후가 병을 앓았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진료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613년(광해5)은 인목왕후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시기로, 역모 혐의로 아버지 김제남이 사사당하고 아들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당하였다. 김제남의 사사 직후 광해군은 대비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을 이유로 의녀를 번갈아가며 숙직시켰으나,<sup>48)</sup> 며칠 뒤 의녀로 하여금 대비전을 염탐하고 궁녀를 찾아 잡아오게 한 것으로 보아,<sup>49)</sup> 실제 인목왕후가 질환을 앓아서 의녀를 보내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침투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인목왕후와 딸 정명공주는 이후 서궁에 유폐되다시피 하며,<sup>50)</sup> 아들 영창대군은 이듬해 유배지에서 살해당한다.<sup>51)</sup>

1615년(광해7) 대비전에 약방과 관원들이 문안하였으나, 민간에 대비가 병들었다는 소문 때문에 문안한 것이라는 사관의 평가를 보면<sup>52)</sup> 실제 질환을 앓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618년(광해10)에는 인목왕후를 대비의 지위에서 강등하고 서궁에 감금시키는데,<sup>53)</sup> 어머니를 폐한 광해군의 행동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의 죄로, 추후 반정의 명분이 되었다.<sup>54)</sup>

선조와 광해군 대에는 『실록』의 기록밖에 없어 질병 치료의 상세한 과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남겨진 기록을 통해 선조 생전에는 인목왕후가 크게 아픈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 사후 국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몸을 많이 상하여 바람을 두려워하고 추위에 노출되면 치통이 생기는 등 양기가 많이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계축옥사와 서궁 유폐를 겪으며 심신이 피폐해졌을

42) 『태산요록』(한의고전명저총서) 產後食忌 “○產後勤去乳汁不致積滯 一臘之後恐喫物無味可爛煮羊肉或鷓鴣汁略用滋味作粥飲之不可過多凡喫物過多恐成積滯 可食鯽魚粥軟飯白羊肉鯽魚黃雌雞葱菹作羹皆不可過也”

43) 『광해군일기』 광해 즉위년 7월 10일 2번째 기사 “大妃殿玉候未寧醫女入診則柴毀骨立臥不能起只進葦苈粥數呷藥房請與醫官議藥答曰依啓慈殿玉候未寧不勝憂悶之至”

44) 『광해군일기』 광해 즉위년 9월 8일 2번째 기사 “大妃欲親祭先祖几筵于永慕殿屬有疾藥房啓請醫女入侍大妃殿答曰頭痛已愈問安勿爲之醫女須速出送永慕殿舉動之事惟是之望”

45) 『광해군일기』 광해 즉위년 10월 12일 1번째 기사 “慈殿出於至情所當卽爲承順但玉候雖似向差而累月未寧之餘元氣極弱自前素有畏風之證暫觸寒冷齒痛輒發此時輕爲舉動至致添傷則豈可憂況予病方劇不能出戶慈殿舉動何可獨爲也事勢如此不得已姑停以待春和此意藥房知悉”

46) 임금의 어머니로 대비, 즉 전왕(前王)의 왕비를 가리킨다.

47) 『광해군일기』 광해 4년 10월 6일 10번째 기사 “醫女則內局新屬之輩術業似優於前屬之類故頃日慈殿違豫時亦欲令此輩入診矣”

48) 『광해군일기』 광해 5년 6월 4일 6번째 기사 “傳曰金梯男罪矣關宗社王法至嚴不得已勉從群情屈法賜死矣其在大妃殿擻傷必倍內醫女一人輪回入直藥房”

49) 『광해군일기』 광해 5년 6월 13일 11번째 기사 “領議政李德馨曰當時士大夫家捉人之時或令醫女入探今亦依此例令醫女搜探宮女于大妃殿何如王命承旨曰依領相之言多定守門將傳官嚴禁雜人後令醫女入探拿來 【既謂之慈殿而搜括宮人有若閭家大臣獻替之義果如是乎】”

50) 『광해군일기』 광해 14년 4월 21일 1번째 기사를 보면 서궁에서 내외가 단절된 지 9년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실제적으로 계축옥사 이후로 계속 유폐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王日遣內官問安于大妃殿廢處慶運而名之曰西宮內外阻絕九年矣日日問安如廢定省何”)

51) 『광해군일기』 광해 6년 2월 10일 2번째 기사 “江華府使鄭沆殺永昌大君璵”

52) 『광해군일기』 광해 7년 8월 7일 2번째 기사 “大妃前殿藥房分承旨二品以上六曹兩司長官問安答曰知道 【時聞巷傳言大妃有疾故也】”

53) 『광해군일기』 광해 10년 1월 30일 2번째 기사 “貶尊號削前上本國尊號出玉冊玉寶去大妃二字稱西宮”

54) 『광해군일기』 광해 15년 3월 14일 1번째 기사 “姑學其大者予雖不德祇受天子之誥命爲先王之配體母儀一國積有年載夫爲宣廟子也者不得不以予爲母而光海聽信讒賊自生猜隙刑戮我父母魚肉我宗族懷中孺子奪而殺之幽廢困辱無復人理”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 3) 인조대

인조반정으로 인목왕후는 대비의 지위를 회복하고 왕실의 가장 웃어른이 되었다. 반정 직후 인목대비가 광해군에게 보인 증오와 분노를 보면<sup>55)</sup> 10년 가까운 유패 기간 율화(鬱火)가 차곡차곡 쌓였음을 가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율화의 연장으로, 인조대에 인목왕후가 앓은 질병은 대개 '화열(火熱)'로 분류할만한 것들이다.

1624년(인조2) 이괄의 난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대비의 기후가 매우 편찮았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으나<sup>56)</sup>, 진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에도 전란 중이라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듯하다. 1628년(인조6) 9월 기사에서는 사간원이 “지난 번 자전께서 미령하셨을 때 은밀하게 홍주원으로 하여금 약을 지어 들이도록 하였습니다.”라고 고하니,<sup>57)</sup> 이즈음에도 인목왕후가 질병을 앓은 것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진료 기록은 1629년(인조7) 이후에 등장한다. 이 중 1631년(인조9) 1월과 1632년(인조10) 6월에는 인목왕후의 질병이 위중하여 시약청(侍藥廳)<sup>58)</sup>이 설치되었다.

#### (1) 사지의 종기

인목대비가 앓은 사지의 종기에 대해서는 1629년(인조7) 7월 기록상에 등장한다.

“자전께서 평소 앓던 □풍(□風)<sup>59)</sup>은, 양팔과 수족에 간혹 종기가 생길 때가 있는데 금년은 무더위가 여느

해와는 달라 더욱 고통스러워하신다. 들건대, 인경궁(仁慶宮)에 초정(椒井)이 있다고 하니, 자전을 모시고 가서 목욕하고자 한다. 이 물이 어떠한지 모르겠다.”<sup>60)</sup>

무더위에 의해 이전해보다 더욱 고통스럽다는 사지의 종기에 약물 치료는 이미 한차례 시행되었던 것 같다. 다만 전일에 진여한 약이 매우 써서 자전이 잘 먹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와, 이 증상만 가지고 누차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 또한 불편할 것이라는 판단에<sup>61)</sup> 약물 치료는 더 의논되지 않았다.

더위(暑熱)로 심해진 점, 쓴 약(苦味)으로 이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인목왕후의 종기가 열로 인해 생겼다고 간주한 듯하다. 또한 인경궁 초정은 온천이 아니라 차가운 물(冷冽之水)인데,<sup>62)</sup> 인목왕후가 초정에 다녀온 뒤 약방의 문안에 평안하다고 답을 한 것을<sup>63)</sup> 볼 때 종기로 인한 괴로움을 냉수로 씻어내어 효과를 본 듯하다.

#### (2) 현훈, 두통, 인후의 통증과 흉종

1631년(인조9) 1월 18일 인목왕후는 현훈과 두통, 흉격의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다음날에는 뱃속에 장명과 약간의 통증이 생기면서 온몸이 뒤틀리고 대변을 약간 묽게 보았으며, 열기로 질색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복약 후 열은 조금 내렸으나 얼굴이 파래지고 떨리는 증상이 일어났다. 22일부터는 흉격이 답답하고 정신이 혼미한 증후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인후에 점차 통증이 생기며 우측 인후가 붉게 부어오르면서 두통과 오한 등의 증상이 있었다. 23일에는 처음 증상은 점차 줄었으나 인후의 통증과 부종은 여전하면서 목에 붓기가 생겼고, 24일에는 인후 좌측으로도 통증이 생겼다. 25일에는 변이 풀어져서 의관들이 길조로 보았으나

55) 『광해군일기』 광해 15년 3월 13일 10번째 기사에서는 “이훈(광해군) 부자의 머리를 가져와서 내가 직접 살점을 씹는 뒤에야 책명을 내리겠다.”고 하였고, 직접 이이첨 등을 국문하기를 요구하며 “통분스러운 일에 있어서 친국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예의에 구애되는 것이겠는가.”, “나의 심기가 울분에 쌓여 있는 지 오래 되었다. 이번에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제공들은 용서하라.”하며 그 울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다음날 7번째 기사에서는 광해군을 속히 궁 밖으로 유배 보내도록 간절히 청하는 교지를 내리기도 하였다.

56) 『승정원일기』 인조 2년 2월 9일 11번째 기사 “會慈殿氣不平”  
『인조실록』 인조 2년 2월 10일 7번째 기사 “大妃殿氣甚不寧”

57) 『승정원일기』 인조 6년 9월 14일 6번째 기사 “院啓頃日慈殿未寧之時自內密教洪柱元使之劑藥以入莫重進御之藥乃敢私自劑入其不識事體甚矣請罷職事”

58) 임금이나 왕비 등의 병이 악화되었을 때 설치되는 임시 기관으로, 내의원 의관들과 당시 유명한 유의(儒醫)들로 구성되어 처방을 의논하던 곳으로, 병자가 낫거나 숨지면 해체되었다.(김기옥,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서울:대성의학사. 2006:304.)

59) □는 빠진 글자이다.

60) 『승정원일기』 인조 7년 7월 11일 25번째 기사 “上曰慈殿素患□風兩臂及手足或有成腫之時而今年則暑濕異於常歲尤以爲苦聞仁慶宮有椒井欲奉慈殿就沐此水未知如何”

61) 『승정원일기』 인조 7년 7월 11일 25번째 기사 “壻曰內間有不安節之候而未嘗下教故小臣待罪內局不得登時得聞誠爲惶恐矣浴椒之事閭閻之人無貴賤爲之但秋水甚冷恐玉體加傷臣當退議於醫官上曰醫官則各以其所劑之藥例爲陳達而已且慈殿浴椒豈如閭閻之人全身以沐乎只欲洗其手足耳壻曰如此則似不至於加傷此井人有見之者乎上曰有之往沐時舉動亦當如魂宮舉動時矣壻曰自武德門舉動則何弊之有上曰政院問于日官擇日以啓壻曰藥物則不爲進御乎上曰前日劑進之藥極以爲苦今恐不能盡誠進御也壻曰夏月進藥亦似未安上曰只以此證屢勸服藥誠爲未安矣”

62) 『승정원일기』 효종 5년 8월 10일 17번째 기사 “藥房再啓曰臣等以即者下教之意與柳後聖及諸御醫等商議則皆以爲凡治濕瘡宜於溫井而不宜於椒井且風人俗[浴]椒例於七月望前爲之今則時序已晚日氣頗冷此時若以玉體浸洗於冷冽之水則傷寒極可畏不如以藥水浸洗瘡處爲當云”

63) 『승정원일기』 인조 7년 7월 28일 17번째 기사 “慈殿椒水後藥房問安答曰平安”

두통과 인후의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26일부터는 열도 내리고 인후의 증상도 감소하면서 28일에는 거의 나은 듯 하며, 30일 이후로 2월 말까지는 별다른 증상 없이 평안하

였다. 이때의 경과를 도시한 것이 <표 4>이다. 표 안의 처방은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해당하는 날짜에 복용하였거나 복용 예정인 처방들이다.

표 4. 1631년(인조9) 1월 인목왕후의 증상 경과

날짜	증상 경과	처방
18일 <sup>64)</sup>	현훈증, 두통, 흉격번민	궁갈탕
19일 <sup>65)</sup>	뱃속이 사르르 아프면서 장명, 몸이 뒤틀림. 대변이 약간 묽음. 오시에 열이 극심. 얼굴이 파래지고 떨리며 미음을 먹지 못함.	구미청심원, 양혈지황탕, 월경수, 시령탕, 접명고
20일 <sup>66)</sup>	3경초 열이 극심하고 몸이 떨림. 맥이 매우 빠르고 팔이 떨림.	구미청심원, 죽력, 월경수, 시령탕, 접명고, 우황고
21일 <sup>67)</sup>	밤에 열이 심하게 오르내림. 새벽 녹두죽 먹고 구토. 두통은 어제 오후부터 조금 더함. 오후 낮잠 후 목 뒷부분에 땀이 남.	구미청심원, 접명고
22일 <sup>68)</sup>	4경에 열기가 심. 두통, 흉격번민, 정신혼미 증상은 점차 감소. 지난밤부터 인후 우측으로 붉은 종기와 통증	구미청심원, 시령탕가미 去 건갈 맥문동 加 연고 길경 각 1돈, 박하 형개수 각 5푼, 우황고, 보천환
23일 <sup>69)</sup>	인후의 통처, 붉은 종기는 비슷함. 목도 부어있음.	침 치료,
24일 <sup>70)</sup>	다른 증세는 덜하나 인후 증상은 밤에 더 심함. 인후 왼쪽으로도 통증	침 치료, 우황고
25일 <sup>71)</sup>	대변이 묽고 두통은 감소하였으나 아직 있으며 인후 증상은 여전히함.	웅신산
26일 <sup>72)</sup>	인후 증상 점점 덜하고 열은 내림.	웅신산가미 去 황련 황금
27일 <sup>73)</sup>	수면 양호. 인후 증상 호전. 두통, 현훈도 호전	
28일 <sup>74)</sup>	인후 증상 거의 호전. 두통 호전	
30일 <sup>75)</sup>	수면 평소와 같음.	

- 64)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18일 3번째 기사 “去夜慈殿藥房問安眩暈症復發頭痛胸膈煩悶之症大殿已知取菓大殿爲之”
- 65)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19일 3번째 기사 “仍與醫官等相議皆以爲腹中雷鳴發瘵一身掣動大便少滑之症皆是熱盛所致也夜間用九味清心元一番多至三丸者急於治熱出於不得已也今後熱作時九味清心元每一丸除竹瀝米飲調下使藥力連續而行而涼血地黃湯仍前加入午間加進一貼爲當矣傳曰知道藥房啓曰慈殿症候一向非輕自今日侍藥廳排設應行節目令該曹舉行而處所則定於北所何如”  
7번째 기사 “侍藥廳啓曰伏承下醫官之教慈殿症候昨日劑入柴茶湯恐不爲無效也今日亦爲進御宜當而先實中氣然後藥力得行熱勢亦隨而退却如連子粥·駝駱粥·接命膏等物頻頻進以扶元氣而牛黃膏利於治熱亦間間進御預防潮熱宜當答曰依啓侍藥廳啓曰即聞入診醫女之言脈度甚數且手臂戰掉之症不止云以此問于李惟聖及諸醫官則凡診脈之法熱在內則其脈沉而遲熱在外則其脈數而浮今此脈候亦未必不然而至於手臂戰掉則未必盡由於熱氣內陷而或發於中氣虛而風熱盛柴茶湯加進御然後似當議藥云矣”
- 66)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0일 3번째 기사 “傳于侍藥廳曰二更暫爲睡三更初仍爲熱盛戰掉而厥症比前頗輕用九味清心元三丸竹瀝·月經水各半鍾子然後乃降三更後或睡或覺而熱氣頗歇湯藥前夜進御”  
6번째 기사 “侍藥廳啓曰伏承下醫官之教慈殿症候昨日劑入柴茶湯恐不爲無效也今日亦爲進御宜當而先實中氣然後藥力得行熱勢亦隨而退却如連子粥·駝駱粥·接命膏等物頻頻進以扶元氣而牛黃膏利於治熱亦間間進御預防潮熱宜當答曰依啓侍藥廳啓曰即聞入診醫女之言脈度甚數且手臂戰掉之症不止云以此問于李惟聖及諸醫官則凡診脈之法熱在內則其脈沉而遲熱在外則其脈數而浮今此脈候亦未必不然而至於手臂戰掉則未必盡由於熱氣內陷而或發於中氣虛而風熱盛柴茶湯加進御然後似當議藥云矣”
- 67)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1일 2번째 기사 “侍藥廳啓曰伏聞去夜熱勢甚盛至於屢度升降云此時症候何如進御藥物不可不勉進粥飲以實元氣接命膏最有清熱補胃之功頻頻進爲當答曰此時症候而熱勢困矣二品以上問安答曰四五更間清心元進御味爽菜豆粥進御而嘔吐矣”  
4번째 기사 “侍藥廳再啓曰更與醫官及李惟聖相議則李惟聖以爲當初欲用大柴胡湯而醫官等皆以爲重難故未得試用未寧之候今至六日尚未發表宜用溲藥下瀉鬱熱而且於柴茶湯前加入中添加大黃爲當云諸醫官則以爲方文雖有溲下之法不可用之於至尊之地以此爲難臣等味於醫方不能取舍敢稟傳曰李惟聖之言良是然藥力太峻則難免後患仍用前劑且頭痛之症自昨日午後少減爲教矣侍藥廳三啓問安答曰已時熱上而不至大殿午後良久入睡項間仍有汗氣且藥則未進御矣夕間安答曰症候與書一樣接命膏五匙進御之後即今連子粥進御矣”
- 68)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2일 2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者伏見下醫官之教四更熱氣又爲上升用九味清心元多至六丸熱勢之壯盛可以見矣未寧今已七日柴茶湯已進四服而尚無顯效李惟聖以爲此必藥力微少不能勝熱而然不可膠守常規不得已就前加入中添加大黃爲當云醫官等則以爲仍用前藥而既不能多月經水則紫河車最有治熱補血之功作丸如黍米大朱砂爲衣粥飲吞下亦爲宜當云而李惟聖則深慮其太緩臣等不能取舍敢此仰稟答曰頭痛自第五日始減胸膈煩鬱精神昏迷之症自昨漸減縮戰掉亦不復作時有入睡間有汗氣以此觀之則寒熱往來之症時無漸歇病之大勢則已向差境姑從醫官等所見俾無後患又啓伏審慈殿自去夜有咽喉暫痛右邊似爲紅腫其邊頭痛頗甚且有惡寒等症候所謂右邊紅腫者在於喉內發於頸側未能分解而大概咽喉之症或因傷寒熱極而發者亦且有之況聞慈殿自前有此候則今之所患未必非乘熱而發也姑於柴茶湯加入中減去乾葛·麥門冬新加連翹·吉更[苦荬]各一錢薄荷·荊芥穗各五分以此劑入宜當牛黃膏最良於腫症亦頻頻進御宜當答曰依啓痛處乃咽喉非頸側也”  
4번째 기사 “侍藥廳啓曰紫河車入當歸作丸其名曰補天丸故今以補天丸封題書入之意”
- 69)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3일 4번째 기사 “藥廳啓曰慈殿所患元症則大熱不爲上升戰掉寒縮之候亦不復作可知其大勢之已歇而目前所重者在於咽喉今日則痛處紅腫有加無減浮氣亦發於項頸若不急治之則其勢必至於成膿矣臣等會同李惟聖諸醫官及柳後聖高議則皆以爲消散腫熱無良於針若趁時施針則可以止成膿之勢雖或不能止成膿病可消散熱氣減却痛勢云而第未知內問事勢不敢斷然上請安答曰啓辭甚當依爲之慈殿受針後二品以上問安答曰一樣受針後菜豆粥進御矣”
- 70)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4일 3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受鍼後咽喉症所患元症何如答曰元症日漸向歇而咽喉之症夜來益甚以此憂悶矣”  
6번째 기사 “侍藥廳再啓曰凡咽喉之症流行不滯則必不至成腫慈殿症候則咽喉左邊亦痛云消散之兆已見矣鍼效亦不可不行矣亦須連針以散其熱毒而今承聖教宜於正午當行依昨日點穴並行之意敢啓傳曰依啓慈殿受鍼後二品以上問安答曰朝時駝駱粥進御入診後白粥小許進御受鍼時茶豆粥進御受鍼時牛黃膏進御症候則一樣矣”
- 71)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5일 2번째 기사 “藥廳啓曰 今日更用他藥事, 與李惟聖及諸醫, 十分商議, 則皆以爲便滑, 大是吉兆, 頭痛雖減, 尚未快降, 咽喉之症, 亦爲一樣, 則今姑仍用前藥宜當云矣. 答曰, 厭其前劑, 不欲連進, 更議他藥以啓. 又啓曰, 即與李惟聖及諸醫官, 更爲商議, 則以爲餘熱, 尚未快降, 清涼之劑, 不可遽停. 凝神散, 有收斂胃氣, 清涼肌表之功, 劑進一二服, 看今明症候, 更議爲當云矣”
- 72)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6일 4번째 기사 “侍藥廳啓曰伏審慈殿症候日就平復之境時方進御凝神散加入中黃連·黃芩寒苦之材熱勢既已衰減則欲減去此兩材敢稟答曰依啓”
- 73)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7일 9번째 기사 “慈殿侍藥廳·二品以上問安答曰夜來寢睡勝於昨日咽喉亦可差歇頭痛眩暈之證比昨日尤差四更駝駱粥進御味爽白粥進御矣”
- 74)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28일 3번째 기사 “慈殿二品以上·侍藥廳問安答曰咽喉之症似乎永差頭痛亦差寢睡頗穩三更駝駱粥進御矣”
- 75) 『승정원일기』 인조 9년 1월 30일 5번째 기사 “慈殿侍藥廳朝問安答曰寢睡平常矣”

궁갈탕(芎藭湯)은 외감풍한에 의한 협통에 사용하는 처방(76)으로, 시기가 음력 1월의 한겨울인 것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외부 한사를 원인으로 본 것으로 사료된다. 상한으로 열이 나고 설사할 때 사용하는 시령탕(77)을 가감하여 연일 복용시켰다. 또한 직접적으로 청열(淸熱)하기 위해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78), 월경수(79), 양혈지황탕(80), 우황고(81)를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중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명고(接命膏)(82)를 복용하면서, 응신산(凝神散)(83)으로 위장을 도우면서 허열을 다스린 것을 알 수 있다.

### (3) 열증(熱證)에서 사망까지

1632년(인조10) 2월 15일 기사에서는 인목왕후가 평소 심화(心火)가 있어 늘 구갈이 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연이어 차가운 것을 먹어 답이 성하고 기침을 하며 가슴이 답답한 증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sup>84)</sup> 이때 화열로 폐가 상한 것으로 보고, 기침을 다스리기 위해 청열, 거담(祛痰)하는 약제로 구성된 청금강화탕(淸金降火湯)<sup>85)</sup>,

발산하고 거담하는 해표이진탕(解表二陳湯)<sup>86)87)</sup> 등 처방을 사용하였다. 이후 호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증상이 조금 덜 해지며 3월 7일 이후로는 약방의 입진 기사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8일, 갑자기 자전의 약을 의논하는 기사가 등장한다.<sup>88)</sup> 29일 기사에서 연일 탕약을 복용해도 증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sup>89)</sup> 병은 며칠 정도 더 일찍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열이 심해지자 6월 4일에 시약청이 설치되었으며,<sup>90)</sup> 구체적인 증상의 모습은 6월 6일 기사에 등장한다. 시약청 설치 이후의 증상 경과는 <표 5>에 도시하였는데, 주증은 설사와 복통, 발열이 있으면서 담이 가득하고 흉격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인목왕후의 증상은 주로 인체 상부의 열증이었으나, 여기서는 해당 증상들과 함께 설사를 계속해서 앓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음력 5월말에서 6월, 즉 여름의 초입으로, 서증(暑症)을 앓은 뒤 설사하기 시작했다는 기록과<sup>91)</sup> 초기에 서사(暑邪)를 다스리는 처방<sup>92)</sup>이 쓰인 것을 보면 처음에는 인목왕후가 더위에 상한 것으로 본 듯하다.

- 76) 『동의보감』 「脅」 風寒脇痛川芎藭湯 “治風寒脇痛川芎藭枝細辛枳殼人參芍藥麻黃防風各一錢甘草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水煎服<本事>”
- 77) 『동의보감』 「寒」 傷寒自利〔柴芩湯〕 “治傷寒熱病發熱泄瀉柴胡一錢六分澤瀉一錢三分白朮猪苓赤茯苓各七分半半夏七分黃芩人參甘草各六分桂心三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水煎溫服<丹心>”
- 78) 『동의보감』 「火」 上焦熱〔九味淸心元〕 “治心胸毒熱蒲黃二兩半犀角二兩黃芩一兩半牛黃一兩二錢羚羊角麝香龍腦各一兩石雄黃八錢金箔一千二百箔內四箔爲衣右爲末蜜和兩作三十九丸爲衣每用一丸熟水化服<醫說>”
- 79) 『동의보감』 「湯液編」 婦人月水 “계집의 월경수解毒箭并女勞復〇扶南國舊有奇術能令刀斫不入惟以月水塗刀便死此乃汚穢壞神氣也人合藥所以忌觸之<本草>〇治陰熱最佳<俗方>〇月經衣水漬取汁亦同<本草>”
- 80) 『동의보감』 「婦人」 產後發熱〔涼血地黃湯〕 “治產後發熱生地黃三錢赤芍藥當歸川芎各一錢半右剉作一貼水煎服<袖珍>”
- 81) 『동의보감』 「婦人」 產後發熱〔牛黃膏〕 “治產後熱入血室朱砂鬱金各三錢牛黃二錢半牡丹皮二錢甘草一錢龍腦五分右爲末蜜丸皂子大每一丸井水化下<玉機>”
- 82) 『동의보감』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대 내의원 의관이었던 강명길의 『제중신편(濟衆新編)』에서 人乳와 生梨汁을 더한 것을 일러 접명고라고 하였다.
- 83) 『동의보감』 「內傷」 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凝神散〕 “治內傷熱中收斂胃氣淸涼肌表人參白朮白茯苓山藥各一錢白扁豆梗米知母生地黃甘草各五分地骨皮麥門冬竹葉各三分右剉作一貼薑三棗二煎服<入門>”
- 84)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2월 15일 14번째 기사 “藥房都提調尹昉提調崔鳴吉右副承旨李景奭啓曰臣等即因下醫官診錄伏審慈殿證候有不安之節臣等不勝憂悶之至慈候常素有心火每以口渴煩憊爲教矣 近因煩渴之時連進冷物痰盛·咳嗽·胸煩等症皆是肺傷所致以淸金降火湯加人參麥門冬各一錢黃連酒炒梔子炒〇〇煎水調柿霜末連進爲當醫官之言如此此藥劑入何如”
- 85) 『동의보감』 「咳嗽」 鬱嗽〔淸金降火湯〕 “治熱嗽能瀉肺胃之火火降則痰消嗽止陳皮杏仁各一錢半赤茯苓半夏桔梗貝母前胡瓜蒌仁黃芩石膏各一錢枳殼八分甘草三分右剉作一貼入生薑三片水煎服食後<醫鑑>”
- 86) 『동의보감』 「咳嗽」 哮證〔解表二陳湯〕 “治哮喘二陳湯(方見痰門)一貼加紫蘇葉麻黃杏仁桑白皮紫菀貝母桔梗各五分右薑三煎服<醫鑑>”
- 87)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2월 21일 3번째 기사 “藥房都提調尹昉提調崔鳴吉副提調李敏求啓曰慈殿所御前日劑入解表二陳湯連進後未審症候之加減何如此藥又爲劑入乎敢稟答曰症候似減此藥數貼加劑入”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2월 23일 5번째 기사 “藥房啓曰慈殿所進解表二陳湯連爲劑入後不審慈候加減何如前日有數貼加劑入之教前劑入之藥當於明日畢進又爲劑入乎敢稟 傳曰證候似減爲教此藥加劑入”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2월 27일 4번째 기사 “藥房都提調尹昉提調崔鳴吉副提調李敏求啓曰慈殿證候加減何如解表二陳湯〇劑入已至九點今日又爲劑入乎? 解表二陳湯連爲進御亦似未安敢稟傳曰知道”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3월 5일 7번째 기사 “藥房啓曰伏聞慈候又有不安之節而不能詳知敢此仰稟解表二陳湯仍前加減連爲製入乎竝稟答曰前日所患之症往來無常至今未瘳此藥明日加劑入”
- 88)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5월 28일 3번째 기사 “藥房慈殿議藥啓辭答曰依啓”
- 89)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5월 29일 2번째 기사 “慈殿症候湯藥連日進御而有加無減此必藥不相當之致令醫女入診更爲議藥以啓言于入直御醫”
- 90)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4일 2번째 기사 “傳曰慈殿症候午間熱勢極重武德門內侍藥廳排設”
- 91)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7일 10번째 기사 “政院啓曰臣等因今日問安慈殿伏觀批答泄瀉頻數所進只白粥水少許而已 玉候未寧今已十餘日專廢水刺元氣虛弱暑症後泄瀉之症尤爲可虞”
- 92) 『동의보감』을 보면 초기에 쓰인 이향산(二香散)은 서풍(暑風)으로 인한 감도(感冒)를 치료하고, 각서청건탕(卻暑淸健湯, 삼유음(參蓆飲)의 이명이다.)은 여름에 열을 내리고 원기를 보충하며 객란토사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표 5. 1632년(인조10) 6월 인목왕후의 증상 경과

날짜	증상 경과	처방
6일 <sup>93)</sup>	설사 여전함. 수면 불량. 복통 감소. 낮부터 발열, 답수, 흥격번민.	월경수, 우황고
7일 <sup>94)</sup>	잡은 설사. 흰죽만 조금 먹음. 약간 하혈.	인삼백호탕, 접명고, 각서청건탕
8일 <sup>95)</sup>	3경 발열, 설사. 하혈. 거처를 옮김.	
10일 <sup>96)</sup>	정신이 혼몽. 잠들기 어려움. 죽을 먹고 토함. 수면 불량. 밤낮으로 발열 심.	죽령, 용뇌소합원, 탕약(불명)
11일 <sup>97)</sup>	야간 설사 지속. 상열. 기침. 갈증. 낮에 열이 심하고 저녁에 조금 덜함.	삼령백출산, 익원산, 월경수, 우황고. 나도3돈, 길경 맥문동 오매 각1돈, 굴홍 5푼, 상백피밀자 2돈
15일 <sup>98)</sup>	야간 설사 지속. 탄산.	가미이진탕
17일 <sup>99)</sup>	여러 증상이 모두 감소. 탄산 약간 호전. 인후에 가래가 많이 낫.	가미이진탕
19일 <sup>100)</sup>	열은 감소. 이릉. 피곤. 입맛은 있음.	굴련지출환, 청량미음, 응신산
20일 <sup>101)</sup>	-	우황고, 사혈탕 去 숙지황 加 적작약 연교 꽤모 목통 각 1돈, 서각屑 우황 각 1돈
21일 <sup>102)</sup>	자다 깨다 함. 설사. 말을 반복해서 함.	우황고, 사혈탕
22일 <sup>103)</sup>	밤새 헛소리를 함. 기운이 혼몽함. 복통 심. 대변불통. 우황고 복용 후 배변. 맥이 부함.	우황고, 보중익기탕
23일 <sup>104)</sup>	미음을 배로 먹음. 얼굴에 열기가 더 심함. 20-21일에는 글자를 분명하게 보지 못했으나 보는 것이 호전됨.	우황고, 구미청심원
24일 <sup>105)</sup>	수면 보통. 땀은 나지 않고 헛소리를 함. 상열감 더욱 심함. 복통. 설사 후 열감 감소. 손발 마비감, 통증.	
25일 <sup>106)</sup>	머리로 열이 심함. 두통. 설사.	보중익기탕가미 感황기 7푼, 인삼 1돈, 배승마, 去지실, 加지자, 感청피 7푼, 增황련 1돈
26일 <sup>107)</sup>	새벽에 한출 심. 수면 편안. 설사가 계속됨.	우황고, 청심원, 독삼탕. 삼령백출산 加 백작약주초 차전자초연 각 1돈, 황련주초 황금초 진피 목향 각 5푼, 시호 승마 각 3푼
27일 <sup>108)</sup>	3경까지 수면 양호. 설사. 한출. 고단함. 입안이 심하게 마름. 낮 동안 한출이 매우 심. 열이 오락가락함.	독삼탕, 청심원, 우황고
28일 <sup>109)</sup>	수면 불량. 설사. 입, 양팔이 심하게 떨림. 정신 혼미. 한출 심. 발바닥이 차가움. 손가락과 몸에 발열 심.	

- 93)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6일 9번째 기사 “侍藥廳啓曰今者慈殿問安批答內寢睡不如昨日泄瀉之症如前一様昨日劑進藥勿爲劑入云以此問於諸醫則以爲熱勢雖降餘症未除則寢睡時或不安勢所然也泄瀉之症久則成痢此不可不預防但泄瀉一日幾次便色赤白如何腹痛加減如何且有痢色與否後重與否及昨夜劑入益元散進御與否必須詳知然後方可議藥而承傳色所言不能仔細故以是爲問敢此仰稟答曰自昨夕腹痛差歇度數亦減泄瀉之症不至大段益元散時未進御矣”  
21번째 기사 “侍藥廳聽慈殿書問安 答曰朝問安後白粥清少許二巡進御月經水進御氣候泄瀉一様”  
22번째 기사 “侍藥廳聽慈殿夕問安 答曰晝問安後此時則熱而痰且極盛胸膈煩悶牛黃膏進御則味酸還吐口痰水出之矣”
- 94)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7일 4번째 기사 “政院慈殿問安傳曰寢睡則至三更安穩其後則或覺或寢人參白虎湯進御後泄瀉頻數夜則二巡御者一巡白粥水少許進御其後則不得進御矣”  
10번째 기사 “政院啓曰臣等因今日問安慈殿伏觀批答泄瀉頻數所進只白粥水少許而已”  
18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者伏聞入診醫女之言則脈候寸關浮大而數尺脈口比前減一至云因與諸醫商議則皆以爲口減一至者熱退之效也 時時虛乏者熱退口氣未復也熱候升降不已者中氣未復口熱不除勢所然也 此時不可驟補亦不可口調攝之難正在此時宜用却暑清健湯加半夏·柴胡·桔梗各一錢連翹七分枳殼五分口代石膏進服宜當虛乏時以九仙玉道糕和水進御而煩渴時照水冰冷取快一時或虛乏之極不暇和水則隨便嚼下亦爲無妨云此二藥劑入乎答曰依啓”  
19번째 기사 “侍藥廳聽慈殿書問安 答曰朝後泄瀉二巡御者接命膏進御又白粥清二匙進御矣”  
23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因御醫等伏聞慈殿泄瀉頻頻又有鮮血少許隨下云仍與口李惟聖·閔綱等相議則皆以爲此乃熱降症候今日所定却暑清健湯乃此等症治相當之藥不可易也 然更觀夜間症候就原藥中或更爲加減無妨云敢啓答曰知道”  
24번째 기사 “侍藥廳夕問安 答曰氣候與晝一樣自晝問安後熱氣方上與昨日一樣因惱白粥清二匙進御矣”
- 95)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8일 7번째 기사 “侍藥廳啓曰昨昏以更口慈候而就原藥中或爲加減之意入啓矣即者朝問安批答三更熱上泄瀉三巡云症候似與昨夕無異而昨日煎入却暑清健湯進御與否亦不能知臣等不勝憂悶之至必須詳知症候然後方可更議加減之意敢稟傳曰湯藥已爲進御而症候不如昨日矣下血腹痛之症亦甚悶慮治下血之材詳議加入”
- 96)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0일 12번째 기사 “侍藥廳啓曰昨日夜深後伏聞御醫等侍候延祥門外之教臣等亦爲隨後聞慈殿有過爲昏暈之候或慮所進粥飲口隔所致或慮久病熱退氣弱所致與諸醫相議欲爲啓稟而閣門旋閉有御醫等退去之教故啓辭不敢入啓矣即者慈殿問安批答內昨夕如許後睡思無窮而強爲不寐症候不如昨日白粥少許還吐云二品以上問安批答內又以寢睡不如昨日熱氣極重爲教二次傳旨內症候輕重稍相逕庭臣等不任悶鬱未如昨夕之候果是粥滯乎氣困乎夜間專不入睡乎白粥幾許進御幾許還吐熱候與前日如何必須詳知然後方可議藥敢此仰稟答曰昨夕之候似是腸滯熱盛所致非氣困也 夜間睡思亦甚而恐其熱上不爲久寢矣白粥所進極小故吐出亦小矣”  
14번째 기사 “侍藥廳聽慈殿書問安 答曰此時暑氣大發故熱甚矣”

- 21번째 기사 “侍藥廳慈殿夕問安 答曰氣候一樣竹瀝和龍腦蘇合元一丸進御白粥清一巡進御即者湯藥進御而餘數匙許矣”
- 97)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1일 8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今伏承慈殿問安批答夜間泄瀉不止且以氣上不得臥寢云臣等與醫商議則以爲昨日所進參苓白朮散乃泄瀉對症之劑而不可□□服收效今日連進爲當且益元散爲治熱止瀉□□聖藥苟於清梁米飲或白粥清調以清蜜照水極冷服之則當初必有一二番快瀉而其後則必有神效此藥間閱經驗者甚多諸醫所論無不如此試爲劑入何如”
- 9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因御醫等伏聞慈殿有咳嗽煩渴之候宜以炒糯稻三錢桔梗·麥門冬·烏梅各一錢橘紅五分桑白皮蜜灸二錢六味茶煎水和砂糖屑時時御進爲當云此藥劑入何如”
- 18번째 기사 “侍藥廳慈殿晝問安 答曰與朝一樣此時則最熱月經水進御俄而白粥清數匙進御證勢則當自大殿下教矣此何症耶? 詳議書啓去熱之劑以啓可也”
- 19번째 기사 “侍藥廳慈殿夕問安 答曰熱則此時稍減即者白粥少許進御牛黃膏半半丸進御矣”
- 98)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5일 11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承聖批慈殿去夜累度泄瀉故今朝不如昨日吞酸之症亦一樣臣等不勝驚惶與醫官等更爲商議則昨進加味二陳湯雖非泄瀉之藥而其中材料可以兼治泄瀉至於□□之症此實爲對症其效宜速一服□□後輕重間必有其效而今乃如此必是□□痰積膠滯藥力不能即行故也今日亦爲□□云依此言煎入之意敢啓”
- 99)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7일 9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夜來慈殿症候何如昨日加味二陳湯煎入後果爲進御否且昨朝伏承聖批有諸症皆似減歇之教然則吞酸之症更不發否加味二陳湯主治專在消導積食停痰等症而至於調補元氣之功則難靠於此實非久進之藥吞酸之候若已差歇則不必連進似當更議他藥故敢此仰稟答曰症候與昨日一樣湯藥三分之一進御吞酸之症雖未快愈比前頗減更議他藥未爲不可矣”
- 14번째 기사 “侍藥廳慈殿晝問安 答曰氣候與朝一樣酪粥少許進御矣”
- 16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刻伏承下醫官之教慈殿自朝連有吞酸之症多吐痰涎喉噎之間痰滯極盛云仍與諸醫商議則朝□□辭時已慮其如此故加味二陳湯間進御之意已爲啓達矣此藥即爲煎入何如”
- 100)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9일 9번째 기사 “侍藥廳啓曰慈殿熱候已退而中氣尙未復常臣等私竊憂悶思欲仰稟而未敢矣即者御醫引見後備聞榻前之教仍與諸醫商議則耳聾之症乃傷寒熱退後例有之症可不治而自愈今姑以生地黃·棗子丁等物塞耳無妨氣體困惱之症乃大病之餘胃弱不能運化所進粥飲□□隔間兼有餘熱所致橋連枳朮丸最爲□□□逐日所進湯藥之外兼以此藥青梁米飲□□最妙且凝神散明日亦當煎進而但念古人之飲食有味無味知內傷外感之別而用藥之際□□加減即今慈殿所進粥飲雖不嗜進而亦能知味乎抑亦雖進而口不知味乎? 此一款最是緊着故惶恐敢稟答曰知道 所進之物知味矣”
- 101)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0일 10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御醫入診後議藥事啓稟矣即者□□□見後備聞症候不必待入診醫女而後知之此時治熱爲急牛黃膏最合此症而前日些少進御難望見效故自外和井花水以入慈殿雖不肯進御各別勸勉期於盡呷幸甚且瀉血湯去熱地黃代赤芍藥加連翹·貝母·木通各一錢煎水調和犀角屑·牛黃各一錢進御宜當云此藥煎入何如”
- 102)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1일 7번째 기사 “伏承聖批以今朝則不如昨日爲教臣等益切憂悶但昨日慈殿言重一節似異常時此則皆是熱盛之候而此熱少減則其困憊之痰亦未足怪未知聖教所謂今朝不如昨日者或是熱降之效歛抑亦證勢漸有加重之狀歟此一款必須詳知然後方定瀉血湯仍用與否之決惶恐敢稟答曰知道 所謂不如昨日言語精神不如昨日也”
- 11번째 기사 “侍藥廳大殿問安答曰知道 慈殿晝問安 答曰氣候與朝一樣牛黃膏二巡進御矣”
- 14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夕間慈候何如? 瀉血湯已爲進御乎? 粥飲比前無減乎? 敢稟答曰證候一樣瀉血湯一半進御粥飲今日所進不如<昨日>矣”
- 103)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5번째 기사 “慈殿問安 答曰昨昏室塞後終夜諳語不得寢睡駝酪粥數匙白粥上水進御矣”
- 6번째 기사 “侍藥廳啓曰昨昏問安入診後得聞慈殿又有一番昏昏之候”
- 9번째 기사 “侍藥廳啓曰瀉血湯已爲煎進三貼而症候有加無減似不可仍用此藥 昨日啓辭中陳尹善道·李惟聖·崔得龍三人藥方中似當擇取用之故即刻與諸醫商議則李惟聖所獻補中益氣湯爲可云且聞李惟聖曾以此方試之於閭閻家如此之症類獲神效云今日則定用此藥如何”
- 10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聞下醫官之教慈殿腹痛頗重大便亦爲不通云諸醫皆以爲此乃微挾外感腹中熱盛之致牛黃膏必以救之云此藥依前調外以入何如”
- 13번째 기사 “侍藥廳慈殿晝問安 答曰氣候與晝一樣即者暫爲寢睡白粥三匙進御酪粥四五匙進御牛黃膏二巡一鍾子進御即者大便如常荏子粥數三匙進御矣”
- 16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午間伏聞慈殿大便如常粥飲亦爲進御意謂熱勢稍降及聞入診醫女之言則脈度浮症與昨無異云不至憂悶之至即今熱勢何如補中益氣湯已爲進御否敢稟 答曰熱勢別無加減而精神自午前稍似開明且湯藥已爲進御”
- 104)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3일 10번째 기사 “侍藥廳啓曰朝者伏承聖批有諸症似爲減歇之教而又見慈殿晝問安批答則熱勢之減似無疑但聖上以爲重歇之症自昨尤甚困惱亦甚而慈殿批答即者面上有熱云不言朝後所進粥飲多少臣等以此爲憫伏未審向夕後重歇困惱之症面熱之候別無加減否所進粥飲多少何如惶恐敢稟 答曰諸症與朝一樣而上熱症候有加無減且所進粥飲倍於昨日矣”
- 11번째 기사 “政院·二品以上·侍藥廳慈殿夕問安 承傳色以諺錄來傳曰氣候與晝一樣即者駝酪粥少許進御自晝問安後面上多有熱氣至今尙不盡減而不至大段牛黃膏小頻數進御今日則頻進粥飲九味清心元亦爲進御 二十日二十一日間則不能分明見字自昨日見之稍勝今日則尤爲分明見之矣”
- 105)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4일 3번째 기사 “慈殿問安 傳曰初更駝酪粥數匙進御仍爲寢睡三更膳粥少許進御又爲寢睡四更末配酪粥進御氣候寢睡與昨一樣 汗亦不出亦爲諳語矣”
- 7번째 기사 “症候一樣而上熱益甚矣”
- 8번째 기사 “侍藥廳慈殿晝問安 答曰腹痛之前則一巡熱極煩鬱泄瀉之後則熱候暫歇此時則□□熱手足麻痛白粥進御矣”
- 9번째 기사 “晝問安後又爲泄瀉熱候與朝一樣即者膳粥少許進御”
- 11번째 기사 “補中益氣湯已進三貼而有效與否未甚分明觀夜間氣候或仍用此藥或更議他藥或於本藥中更議加減之意敢啓 答曰知道 熱候□□無減矣”
- 106)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5일 4번째 기사 “浮熱甚盛頭痛兼發去夜不得安寢而今朝則諸症稍減精神言語一樣”
- 6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因聖批與諸醫商議則慈殿諸候稍減今日所患只在浮熱不無疑於參芪之甘溫而遽改他藥 前進補中益氣湯黃芪減爲七分人參減爲一錢升麻只爲一倍而加入中去枳實代梔子而青皮減爲七分黃連加爲一錢仍爲進御宜當云依此煎入何如”
- 7번째 기사 “侍藥廳慈殿晝問安 答曰診脈之後再泄瀉熱氣稍歇以泄瀉之故氣似因患膳粥少許進御”
- 12번째 기사 “侍藥廳·政院·二品以上慈殿夕問安 答曰湯藥進御後泄瀉二巡熱氣良久無之即者膳粥進御熱氣雖似暫止而不時復升何以指的? 今姑無熱之時矣”
- 107)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6일 3번째 기사 “寢睡至四更煩安其後則不得寢睡母酒少許進御泄瀉三巡氣候則因憊”
- 12번째 기사 “去夜自初更至三四更汗出比前尤爲浹洽寢睡亦有稍安而氣候新新者似是泄瀉果次之故朝問安時落漏故言之耳 即者似有熱氣故牛黃膏□□及清心元·獨參湯進御此時酪粥”
- 13번째 기사 “侍藥廳啓曰慈候去夜三次泄瀉自朝至午又三次云□□觀之則今日症候似乎與前稍變故與諸醫商議則御醫等以爲大病後泄瀉最爲可畏宜及今日用參苓白朮散量加清熱調中之材以補虛止瀉一刻爲急朝者煎進補中益氣湯雖已進御不必以一日疊進爲嫌 李惟聖以爲餘熱未盡而□□之劑則瀉止而熱復生宜於補中益氣湯加入中略爲變通去其苦寒藥加以止瀉之材仍爲進御云此兩說皆似有理而熱氣既降元氣未復之□□最爲緊要機關臣等不敢輕爲取舍 且元氣虛實泄瀉輕重餘熱多小終有所未詳察眞的不得不具由陳達欲待聖上更有下教處之且諸醫等以爲青皮茶所以破滯氣□□臨時救急不可連用牛黃膏非盛熱時則不必過用 伏聞自內臨熱時獨參湯調清心元進御云最爲允當此時則連續進御足以清其餘熱兼補元氣而連子·山藥粥皆止瀉之藥赤豆粥補中治濕宜於此時進御云故敢此稟 答曰知道 元氣極虛泄瀉甚重餘熱似少而以口渴爲苦矣”
- 14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即者伏承聖批備審慈殿症候更與諸醫商議則此時止瀉爲急參苓白朮散加白芍藥酒炒車前子炒研各一錢黃連酒炒·黃芩炒·陳皮·木香各五分柴胡·升麻各三分今日內煎入爲當云依此爲之何如”

6월 중순이 지나도록 설사와 발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서 증상의 가감이 반복되었는데, 의관들은 원기가 손상된 것을 염려하면서도 병의 근본 원인은 심열(心熱)로 보고 계속해서 강열(降熱), 치담(治痰), 지사(止瀉)하는 약을 사용하였다. 6월 26일에는 설사를 여러 차례 한 뒤에 전에 비해 땀까지 흠뻑 나고 침수가 조금 편안하며 기후가 새로 워졌다고 하여, 설사를 그치게 할 목적으로 삼령백출산(參苓白朮散)을 쓰면서도 발열을 다스리기 위해 청열(淸熱)하는 약재를 가미하여 사용하였다. 27일에도 여전히 땀에 젖고 설사를 하는데다 구갈이 매우 심해졌으며, 28일에는 입안과 손이 매우 떨리면서 땀이 많이 나고 발바닥은 차가우며 손가락과 몸에는 심하게 열이 나다가 사망하였다.

#### 4) 고찰

인목왕후의 건강은 광해군 대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바뀐다. 선조 때에는 출산 후에 금세 회복할 만큼 건강했던 몸은 선조의 상을 치르면서 크게 허약해졌다. 추위를 맞으면 치통이 바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 양기도 쇠약해지고 신(腎)도 약해졌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아들과 친정 식구들이 살해당하고 그 자신도 서궁에 10년 가까이 유폐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화열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었다. 의관들은 인목왕후가 앓는 증상들의 원인을 ‘심화’로 지적하였는데,<sup>110)</sup> 이는 광해군에 의해 10년 넘게 쌓인 울분에 의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처방도

청열하는 약물을 위주로 하여 사용되었고, 1631년(인조9) 1월까지의 이러한 처방이 효과를 본 듯하다.

그러나 1632년(인조10) 2월의 증상에 대해서는 약효가 잘 듣지 않으면서 증상의 증감이 반복되었다. 5월말부터는 그전까지 나타나던 인체 상부의 열증뿐만 아니라 설사와 복통의 이증(裏證)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의관들은 여름철 무더위에 상한 것으로 보고 서열(暑熱)을 다스리는 약물이 나 지사하는 약물을 쓰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열을 끄는 처방을 함께 사용하였다. 중간부터는 이를 허열(虛熱)로 보고 감온제열(甘溫除熱)하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쓰거나, 부족한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 독삼탕(獨參湯)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치자(梔子)나 청피(靑皮), 황련(黃連) 같은 약재를 가미하거나 청심원(淸心元)을 같이 쓰는 등 열을 직접 다스리는 효과를 빠뜨리지 않았다. 또한 담음을 치기 위해 이진탕, 지출환 등 성질이 조(燥)한 약들도 계속 투여되었다.

결국 인목왕후는 설사에 땀까지 대량으로 나면서 죽음에 이른다. 계속되는 설사로 인한 망음(亡陰)에 이어 과도한 땀으로 인한 망양(亡陽)까지 발생하는 와중에도 시약청에서는 심화(心火)로 인한 상황으로 보고 강열, 치담, 지사하는 약재를 가미하여 열을 다스리려고 하였다.<sup>111)</sup> 그러나 이러한 치료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을 거꾸로 유추한다면, 인목왕후의 증상이 비록 극심한 열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로 인해 진액이 소모되고, 고한(苦寒)한 약재로 위장이 더욱 손상되면서 허증이 심해진 상황으로 추정된다. 6월 22일

108)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7일 4번째 기사 “自初更至三更寢睡頗安其後則或寢或覺豆粥一巡進御即者蓮子粥少許進御泄瀉自初更一巡後更不泄瀉初更湯藥盡爲進御汗出淡洽氣候昏困則與昨一樣夜間暫有熱氣故獨參湯調淸心元再巡進御矣”  
12번째 기사 “慈殿晝間安批答內朝後泄瀉三次口渴特甚云而自上繼有牛黃膏入納之命臣等不任憂慮之至未審向夕後慈候何如? 敢稟 答曰與朝無異矣”  
13번째 기사 “侍藥廳慈殿夕間安 答曰與朝一樣蓮子粥進御即者膿粥進御時方寢睡汗出甚多泄瀉則其後不爲熱則暫有往來淸心元獨調參湯進御”  
109)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8일 5번째 기사 “昨者以多思念之故寢睡不穩泄瀉再度三更蓮子粥進御四更豆粥進御五更脫酪粥進御左右臂戰掉頗甚茶則頻”  
6번째 기사 “諸症一樣精神不如昨日矣”  
12번째 기사 “即者蓮子粥少許進御泄瀉一度今日則口中及左右手甚爲戰掉汗氣頗多足掌則冷手指及玉體甚熱”  
15번째 기사 “未時傳于大臣·禮官曰慈殿氣絕矣”  
110)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2월 15일 14번째 기사 “慈候常素有心火每以口渴煩燥爲教矣”  
인조 10년 6월 21일 7번째 기사 “侍藥廳啓曰去夜瀉血湯連進二貼以觀其後症候更議處之故其藥姑爲停煎招致尹善道·崔得龍與御醫及李惟聖·閔桐等商議使之各陳所見則諸御醫及閔桐皆以爲瀉血湯進御後雖無現效亦無敗症不可又改他藥今日以爲仍用而獨參湯兼進以扶元氣爲當尹善道以爲此症本來心熱爲主而重以外感雖口解表發汗尚未淡洽恐有餘熱隱曲於經絡之間今將□□合大靑龍湯加香附一錢·黃連五分以順□□之氣而兼爲發散外邪似當崔得龍以爲宜用火鬱湯加黃蓮酒炒·白朮各一錢黃芩酒炒·梔子仁·麥門冬各七分倍人參以從古者火鬱則發之法李惟聖以爲當初治熱未盡以致元氣消燼純熱用事今則治熱之藥亦不可用不得已用補中益氣湯加生地·連翹各一錢五分赤芍藥酒炒·枳殼·靑皮各一錢黃連·川芎·薄荷各七分元入升麻·柴胡一錢半倍人參爲當云諸人所見不同如此臣等仍念前日用藥雖隨症屢改而大概皆以降熱治痰止瀉等藥爲主至於昨日所進瀉血湯則比前稍變而尹善道·崔得龍·李惟聖所議之藥雖若不同而□”  
인조 10년 6월 25일 11번째 기사 “臣等竊念慈殿所患非一二症而其實火熱所由故前後用藥雖不敢純用苦寒之劑而亦未嘗不以治熱爲重矣”  
인조 10년 6월 28일 13번째 기사 “中氣極虛心火挾發不勝憂悶之至”  
111)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8일 13번째 기사 “中氣極虛心火挾發不勝憂悶之至與諸醫商議則補中益氣湯加赤茯苓·遠志·山藥炒各一錢黃蓮□□藥酒炒酸棗仁炒各七分元入柴胡三服用之”  
시약청에서는 중기(中氣)가 매우 허하고 심화가 함께 발하는 상황을 염려하며 보중익기탕에 적복령(赤茯苓), 원지(遠志), 볶은 산약(山藥), 황련, 산조인(酸棗仁) 등을 가미하고 시호(柴胡)를 3배로 하여 처방하려고 하였으나, 복약 전 인목왕후가 사망하였다.

경 인목왕후의 맥이 부(浮)하였는데, 설사에 부대삭한 맥은 사증(死證)<sup>112)</sup>인만큼 단순히 열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비록 원기를 보강하는 약재를 중간에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청열거담하는 약도 계속 사용하면서 도리어 원기를 상한 것으로 보인다.

『실록』의 기록을 통해 광해군 초 국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인목왕후가 허한(虛寒)해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종기, 두통, 현훈, 인후통 등 표(表)나 상부의 열증이 나타났지만, 그 열은 그의 굴곡진 삶이 만든 칠정의 울결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분노와 슬픔, 언제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등 복잡한 칠정에 기울(氣鬱)이 되면서라도 기운도 점차 깎였을 것이다. 그러나 울체를 풀고 허약한 신양(腎陽)을 돕기보다, 고한한 약으로 당장의 열증을 식히는 치료가 위주가 되어 양기가 더욱 손상되었고, 결국에는 표리로 진액이 모두 탈하면서 탈수로 인한 경련까지 나타나며 사망하게 된 것이다.

종기, 양기가 쇠미한 상태임에도, 드러나는 열증 때문에 청열약을 사용하다가 설사를 하면서 죽게 되는 모습은, 당시 금원사대가, 특히 주단계(朱丹溪)의 학설이 유행하던 점과 연결된다. 명나라 손일규(孫一奎)는 금원사대가를 추종하는 의가들이 한량한 약의 남용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대개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대를 이어오면서 음주와 색욕에 방종하여 그 정을 소모시켰는데, 정이 소모되면 화가 치성하는데도 다시 강제(剛劑)를 사용하여 온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순식간에 혈이 넘치고 안으로는 열이 나다가 뼈만 남아 죽어버리니, 등잔의 기름이 말랐는데 다시 불을 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양은 넘치지만 음은 부족하다’는 이론이 만들어진 까닭이다. 후학들이 이것을 살피지 않고 그 학설을 대강 고수하면서 일단 허겁(虛怯)한 환자를 만나면 바로 자음강화(滋陰降火)하는 약을 주었으니, 말기에 이르러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설사하면서 죽게 되는 것인데, (후학들은) ‘단계의 이론에 구비된 것이다.’라고 한다. 단계의 이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지, 어찌 단

계에게 허물이 있겠는가?<sup>113)</sup>

이처럼 주단계의 ‘양유여음부족’설이 만들어진 맥락을 알고 응용하기보다, 그 학설의 표면만을 보고서 허겁한 환자임에도 화열을 끄는 치료를 남용하던 당시 의료의 문제점을 조선 왕실 의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III. 결론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는 주요 인물임에도, 인목왕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인목왕후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여 인목왕후의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비록 선조와 광해군대의 기록이 『실록』에 국한되고, 인조대의 『승정원일기』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이 있어 온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서 인목왕후의 출산과 질병 치료에 대해 정리, 분석하였다.

광해군 때 선조의 상을 치르고 서궁에 유폐된 것을 전후로 하여 인목왕후의 인생은 물론 건강까지 크게 바뀌게 된다. 『실록』에서 선조대에는 출산 후 복통을 앓은 것 외에 큰 병을 앓은 기록이 없고, 광해군대에 추위를 맞으면 치통을 앓는 소증(素症)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이때까지는 화열증과의 연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서 인조대에 인목왕후가 앓은 증상들은 모두 ‘심화’, ‘화열’의 범주로, 치료 또한 청열을 위주로 시행되었다.

계축옥사로 아버지와 아들을 잃고 인목왕후 자신도 서궁에 10년 가까이 유폐되었기에, 그 기간 쌓인 울화(鬱火)가 심상치 않을 것임은 인조반정 직후 인목왕후가 광해군에게 보인 증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울화는 이내 인목왕후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 사지의 종기나 흉격의 답답함, 구갈 등을 평소에도 앓게 하였다. 심할 때는 현훈, 두통, 발열 등 증상까지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상열로 인해 답답해지는 증상들로 그쳤지만, 그러한 증상들이 채 낫지 않고 반복되어 체력이 약해진 가운데 여름이 되어 서열이 겹치면서 설사, 복통의 이증을 겪

112) 『동의보감』 「大便」 脈法 “泄瀉脈緩時小結者生浮大數者死<正傳>”

113) 『의지서어』 「列張劉李朱滑六名師小傳」 “雖倡陽有余陰不足之論其用意固有所在也蓋以人當承平醞酒縱欲以竭其精竭則火熾復以剛劑認為溫補故不旋踵血溢內熱骨立而斃與燈膏竭而復加炷者何異此陽有余陰不足之論所由著也后學不察概守其說一遇虛怯開手便以滋陰降火為劑及末期卒聲啞泄瀉以死則曰丹溪之論具在不知此不善學丹溪之罪而于丹溪何尤”

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의관들은 심화를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였으나, 종래에는 망음에 이어 망양까지 발생하면서 인목왕후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광해군에 의해 생겨난 율화는 인목왕후의 몸에 온갖 열증을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나 본래 허한(虛寒)했던 소증과 칠정의 율결을 고려하지 않은 치료로, 결국 증오하는 광해군보다도 9년이나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다

본 연구는 『승정원일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인목왕후의 허한한 소증을 『실록』을 통해 확인하여 서거 직전 치료 정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금원사대가, 특히 주단계의 학설이 유행하였는데, 단계가 양유여음 부족 이론을 세운 맥락을 알지 못한 채 화를 꺼뜨리는 치료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시대적 폐단을, 인목왕후의 질병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에도 『승정원일기』 등 사료 속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개인의 질병사 뿐만 아니라 당시 의학적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81081).

## 참고문헌

1. 『승정원일기』.
2. 『선조실록』.
3. 『광해군일기』(중초본).
4. 『인조실록』.
5. 노증례. 『태산요록』.
6. 손일규. 『의지서여』.
7. 잠은. 『식의심감』.
8. 허준. 『동의보감』.
9. 강도현, 고대현, 나향미, 송재민, 차웅석. 「승정원일기의 의안(醫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2014;27(4):55-72.

10.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008;26:439-478.
11. 고대원, 김동율, 김태우, 차웅석.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43-51.
12. 광영룡. 「해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적 연구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3. 김동율, 김태우, 차웅석. 「景宗의 病歷에 대한 연구 I - 『承政院日記』 藥房 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11-22.
14. 김동율,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5-31.
15.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9;30(4):142-161.
16. 김선형, 김달래. 「영조의 질병력과 사망원인: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의사학. 2010;19(2):299-342.
17. 김인숙. 「인조대의 궁중저주사건과 그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2004;31:79-111.
18. 김정경. 「『계축일기』에 나타난 선악관 고찰」. 한국고전연구. 2007;16:161-195.
19.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웅석. 「조선 仁祖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 - 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23-41.
20. 박주영, 국수호, 김남일, 차웅석. 「현종 비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9;32(1):11-20.
21. 박주영, 차웅석, 김남일. 「조선 장렬왕후의 경련에 대한 치병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1):79-87.
22. 방성혜, 차웅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23. 방성혜, 김남일, 안상우, 차웅석.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장희빈 의안 관련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53-62.
24. 이상원, 김동율, 차웅석. 「조선 현종대왕의 침구치료기록에 대한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1;28(2):77-86.
25. 이순구. 「『癸丑日記』에 나타난 궁중생활상」. 사학연구. 1998;55(56):443-458.
26. 이영호. 「서술자의 측면에서 본 『계축일기』의 표현 전

- 략 연구」. 고전문학과교육. 2006;11(11):41-69.
27. 홍세영, 차웅석, 김남일. 「『承政院日記』의 진료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8;21(1):1-11.
  28.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서울:대성의학사. 2006.
  29.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URL: <http://sjw.history.go.kr/>).
  30.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URL: <http://sillok.history.go.kr/>).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URL: <http://encykorea.aks.ac.kr/>).
  32. 한의고전명저총서. 한국한의학연구원(URL: <http://jisik.kiom.re.kr/>).